

메주고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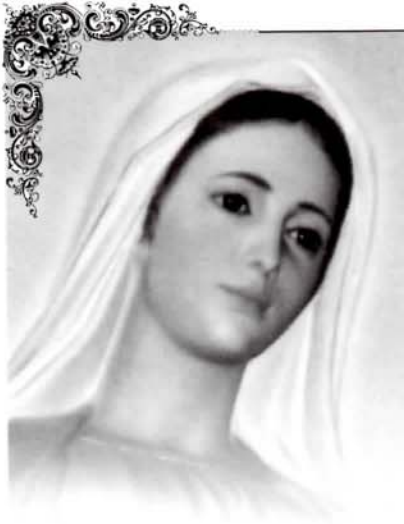


Medjugorje

FEBRUARY, 2006 제31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가 너희 가정 안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성서 읽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서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고 있음을 너희 삶으로 증거하여라. 나는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하며, 나의 아들 앞에서 너희 하나 하나를 위해 중재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2006년 1월 25일 메시지

나의 자녀들아 기도를 시작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예수님을 팔에 안고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를 회개에로 부른다.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기를 통해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회개에로 부르고 있단다. 그러나 너희 중 많은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닫혀 있구나. 어린 자녀들아, 예수님은 평화이시며 사랑이시고 기쁨이시므로, 이제 예수님께 향하도록 결심하여라. 기도를 시작하여라. 그분에게 회개의 선물을 청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너희는 평화와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어머니며, 너희를 나의 모성적인 축복으로 축복한다.



2005년 12월 25일 목격증인 아킴에게 주신 메시지

거룩하신 어머님께 인사드립니다!

1월 1일 삼종기도 강론

완전한 사랑이자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을 취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에게 "대화, 용서, 일치"라는 평화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계신 천주의 모친께로 눈길을 돌립니다. 전례 안에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을 세상에 낳아주신 당신께 인사 드립니다. 거룩하신 어머니!" 베들레헴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음 속에서) 천사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

복음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에 새겼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계 평화의 날'인 오늘(로서) 새해 시작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의 평화"라는 테마는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을 진리의 빛에 맡기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용기를 갖추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중재자이신 마리아의 역할을 믿으며, 인류 가족이 복음의 말씀에 자신을 열고 한 해 동안 형제애와 평화를 위해 살아갈 뜻을 세웁시다.

(L'Osservatore Romano, 2006년 1월 2-3일자 이태리어 기사에서 번역·마리아 뉴스에서 발췌)



- 성모님의 특별한하신 지향을 위하여
- 교황님과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어머니 마을과 모든 봉사자들을 보살펴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과 가정을 봉헌합니다.
- 하나되신 예수 성심과 성모의 성심의 축복을 온 인류에 내리소서.
-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의 일치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르베르따 가정을 봉헌하오니 늘 보살펴주세요.
- 최경미, 박순녀, 천혜영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남편의 건강과 아이들의 학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직도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을 위하여...
- 디스크 수술을 받으신 최규인 쟈마, 광정연 아가다의 쾌유를 위하여...
- 성모님, 빈첸시오, 케빈, 미첼과 기도회원의 가정을 돌보아주소서.
- 유소피아, 유마이클을 예수님의 성심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합니다.
-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새로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자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주소서.
-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주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오빠가정이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동반자를 보내주세요.
- 아버지와 동생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어머니의 영혼을 봉헌합니다.
- 신요한 가정에게 새로운 보금자리와 생활터전을 마련해주세요.
- 이 땅의 평화를 원하시는 어머니의 특별한 전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암으로 투병중인 Guilia Reno, Lauro Vitorino, Barbara Galloway를 위하여
- 기다리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헬레나와 아기를 봉헌합니다.
- 남편을 봉헌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예수님 성모님, 박마르셀리노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 4년째 중풍을 앓고 있는 남편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 예수님 성모님,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아들에게 심터를 마련해주세요.
- 르노의 시험과 건강, 소피아의 배우자, 스토니브룩의 기도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언니와 동생 가정이 주님이 인도해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11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하였고,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역할은 하느님 사랑의 모성적 표현이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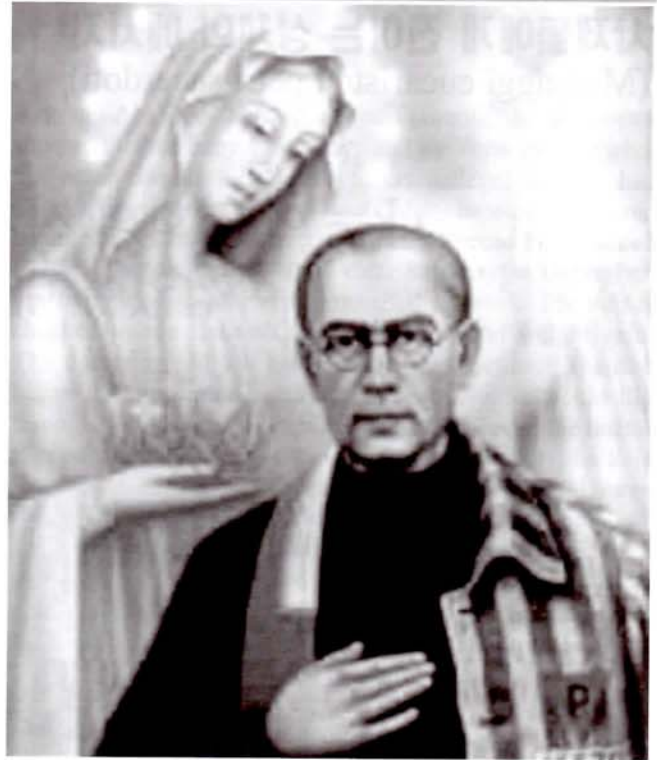


원죄 없으신 성모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단순히 하느님의 피조물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단순한 양모(養母)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전해지는 가설이거나 혹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확실한, 모든 점에서 분명한 사실이고 신앙의 선언이자 교의입니다. 성모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성모님의 힘은 자애 깊으신 모성애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이나 또 이와 비슷한 설명은 끝없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설명도 성모님 품 안에서 숨쉬는 영혼이 느끼는,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더욱 더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시다'는 칭호가 모든 면에서 성모님께 합당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간의 말로써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지니신 지혜에 힘입어 성모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께 부여된 모든 은총은 하느님의 모성(母性)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참 어머니이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의입니다. 성모님은 단지 이름뿐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할 때는 자기 자녀의 어느 일부분만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또 아버지라고 할 때도 자기 자녀의 어느 일부분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함께 그 자녀의 양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당연히 하느님이면서 사람이기도 한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 부여된 모든 특권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하

느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은총은 '원죄 없는 잉태' 입니다. 성모님은 그 존재의 처음부터 모든 허물을 면제받았고 또한 원죄조차도 벗어났습니다. 루르드에서 성모님은 당신의 이름을 '죄 없이 잉태된 자' 라고 하시지 않고 '원죄 없는 잉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녀 벨라벳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귀부인이 마치 신비한 메달에 그려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들장미 수풀 위에서 있었습니다. 내가 세 번을 물어보자 귀부인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고 그분의 태도에서는 깊은 겸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양손을 벌리면서 내 쪽으로 몸을 향하며 조금은 울리는 목소리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I Am The Immaculate Conception)'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원죄 없으신 잉태' 라는 칭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붙여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모님께만 합당한 것입니다. '흰색'과 '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존재의 첫 순간부터 원죄 없으셨다는 사실은 초대 교회로부터 모든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가장 정결하고 천사보다도 더 깨끗하여 어떠한 작은 죄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하면, 또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한 선(善) 자체로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벌주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을 택하시어 당신의 도구로, 주선하시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하자없음이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무한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께 드리는 봉헌도 티 없이 깨끗하여 하자 없고 무한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우리 생활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생활의 연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모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

는 모든 은총의 전구자이며 하느님의 유능한 일꾼이시기 때문에 악마는 우리가 성모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에게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무슨 일이나 관여하고 유혹하며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를 성모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악마는 만일 영혼이 성모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것처럼 많은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영혼을 위할 때나 혹은 어둠 속이거나 빛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성모님을 통하여 앞으로 나갑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성모님에 의해,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은총의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를 타고서 우리는 예수 성심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다리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정상에 도달치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즉 예수님의 출산과 양육을 성모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를 다른 성인들과 비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한 봉헌이 의지대로 실행했다면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또 지금은 잊고 생각지 않아도 그 봉헌의 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남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령 어느 목수가 주문 받은 책상을 만들고 있다고 합시다. 그는 이 책상을 만드는 동안 이 책상은 이 손님을 위해 저 책상은 저 손님을 위해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주문 받은 책상을 만드는 동안 바빠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도 그는 자기의 목적에 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봉헌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성모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모두 성모님의 것입니다. **M**

(성 막시밀리안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의 말씀에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화의 시기에 필요한 큰 은총을 아낌없이 내어 줄 것입니다.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1994년 3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영광은 선한 의지를 지닌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모든 존재들이 하느님의 성심을 찬양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삼위일체적 사랑의 이 신비를 통하여, 나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 봉헌된 그

대들을 항상 보다 높은 책임으로 부릅니다. 모든 자녀를 위한 성부의 선물인 영원한 행복은 그대들의 사랑과 성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대들의 마음은 만민을 위한 찬미와 사랑의 끊임없는 희생인 내 성심의 제대 위에 봉헌된 순수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들의 성덕은 커다란 겸손에서 시작되고, 이 겸손은 그대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십자가 밑에서 있을 때 얻어집니다.

나를 찬양하십시오. 감실 앞에 그대들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 있는 동안 그대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느님의 속삭임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대들의 찬미는 계속 되어야 하며, 하루 중 시간을 정하여 내 현존 앞에서 마음 가득히 사랑과 기쁨과 휴식을 채워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대들의 영혼을 양육시킬 것이고, 내가 오래 전부터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대들의 마음에서 주어지는 영적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맡긴 양들을 위한 성덕의 커다란 선물들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모유를 가진 엄마는 그녀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굶어 죽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대들에게 맡긴 영혼들이 만약 그대들의 마음에서 내 사랑과 현존인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영혼들을 잃는다면, 어느 날 나는 그대들에게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밤, 낮으로 나를 찬미하면서 내 곁에 머무는 항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를 그대들이 그대들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이 언제나 신선하고 거룩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영혼의 유일하고 참된 양식인 나로 그대들을 양육합니다. 보다 자주, 고해성사로서 내 곁에 가까이 오는 용서의 기쁨으로 이 사순절을 사십시오. 특히, 나는 이 정화의 시기에 필요한 큰 은총을 아낌 없이 내어 줄 것입니다. 지금 그대들을 보호하고 정화하고 성화시키며 성부와 성령,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주어지는 유일한 내 사랑이 그대들 각자 위에 있습니다. 아멘.

1994년 7월 3일

사랑하는 나의 딸이여! 부패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만민을 위한 아버지의 구원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계속해서 온 인류를 부르며, 특히,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친 봉헌된 이들을 부릅니다. 이들의 봉헌된 삶과 사랑을 통한 순수한 희생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맡겨진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 말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서 그대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며 아버지에게 바쳐진 순수한 제물들이 되게 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내 사랑을 선포하려고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자신을 맡기며 거룩한 성체 안에서 나를 알아보고 성체로서 양육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특히,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대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모든 물질적 짐착으로부터 멀어져서, 순수한 그대들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몸으로 그대들을 양육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시간을 통

해서 그대들을 양육하고 서서히 내 안에서 변화시킵니다. 밤, 낮으로 늘 나를 찬미하십시오. 내 빛과 은총, 그리고 내 사랑이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기에 수많은 창조물들 안에서 그대들은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대들의 삶을 통하여 내 삶을 드러내고 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커다란 은총의 선물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대들은 항상 기도와 찬미에 성실하십시오. 나는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 성심으로 그대들 모두를 축복하고 보호합니다.

아멘 M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우리의 영혼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기도 방법이 성시간입니다. 이 성시간 동안 성체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앙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 이신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히어라' 번역/ 신경남신부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3 set.
- 메주고리에 서적 및 메시지 테이프 보급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성 바로 서원 (714-638-3855), 평화의 모후 성물센터 (323-730-1499)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나는 희망의 어머니이다

스테파노 곱비신부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83. 1. 1.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신회를 가지고 나를 우러러본다. 그리고 '신적 보편적 모성'의 신비에 싸여 있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니 이 시대의 엄청난 고통과 허다한 불안 속에서, 또 너희의 미래를 무겁게 짓누르는 위협 속에서, 너희는 눈을 들어 이 '천상 엄마'를 바라보아라. 나를 하느님의 자비의 샘으로, 너희 희망의 큰 표징으로 여겨라.

나는 희망의 어머니이다.

이것(=망덕)은 특히 피비린내 나는 정화기에 너희가 생활화해야 할 대신덕(對神德)이다.

내 원수는 너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할 내 군대를 약체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갖가지 방식으로 너희를 실망시키려 애쓰는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으며, 지금 사탄이 거두고 있는 표면상의 승리는 모두, 보다 크고 새롭음 참패를 실제로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증오가 너희의 길을 피로 얼룩지게 하고, 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얼어붙게 하며, 인류가 사랑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욱 신뢰해야 한다. 또한 너희 희망의 징표인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사랑과 '은총의 어머니'요, 용서와 자비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한 해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나는 황폐한 세상



길을 두루 다니며 내 자녀들의 마음에 회개와 선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오늘날에는 정녕 빛과 위로가 필요하다. 이 시대의 내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가, 어머니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나는 비통한 연민에 잠겨 죄인인 내 자녀들의 무수한 무리를 바라본다.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에 의해 유혹 당하며 배신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건잡을 수 없는 이기심과 증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성인들, 무관심과 신앙 부족으로 나태해진 교회의 자녀들을. 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 나는 거듭 말한다. "나는 너희들의 '희망의 어머니'이다."

너희는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극심한 냉기 때문에 실망해선 안 된다. 내가 날마다 생명과 부활의 씨앗을 어디에나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의 서광이다. 동터오는 새날의 여명이요, 거룩한 '기쁨의 어머니'이다. 너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로서 그분의 부축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기쁨 속에서 살아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사는 기쁨으로, 그리고 '티없는 내 마음'의 정원에서 안전함을 얻게 된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라. 그러면 너희 모두가 이 새해를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M**

(이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마리아 사제 운동과 다락방 기도회의 창시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요조 조브코 신부

친애하는 후원자 여러분,

저와 성가정회의 가족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거룩한 시기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대한 선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제로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를 잃고 받은 상처로 위로가 필요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들이 마음과 사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언 14년 동안 해온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매일의 기도와 철야기도를 통해, 착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과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호단체나 기금 모금단체처럼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주시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체험하는 기쁨을 나누며 성장해 왔습니다.

저와 우리가족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매일의 묵주기도와 영성체로부터 넘쳐 흐르는 축복과 진심 어린 기도는 모두 후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성체를 모실 때가 되면 주님의 면전에 성작과 성반을 들어올리며 특별히 후원 여러분 모두를 봉헌하며 미소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해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을 믿어주시고 자신의 일로 생각해주시고 받아주셨기에, 우리의 성가정회에서 올 가을에 제 6차 소녀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사랑

의 사업은 조금씩 마무리되어 건물은 거의 완성되었으며, 필요했던 사무실, 도서실, 손님방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용도 홀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도 음향시설, 전기, 창문, 문, 의자, 바닥과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며 곧 마당과 길 공사가 시작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도움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과 성과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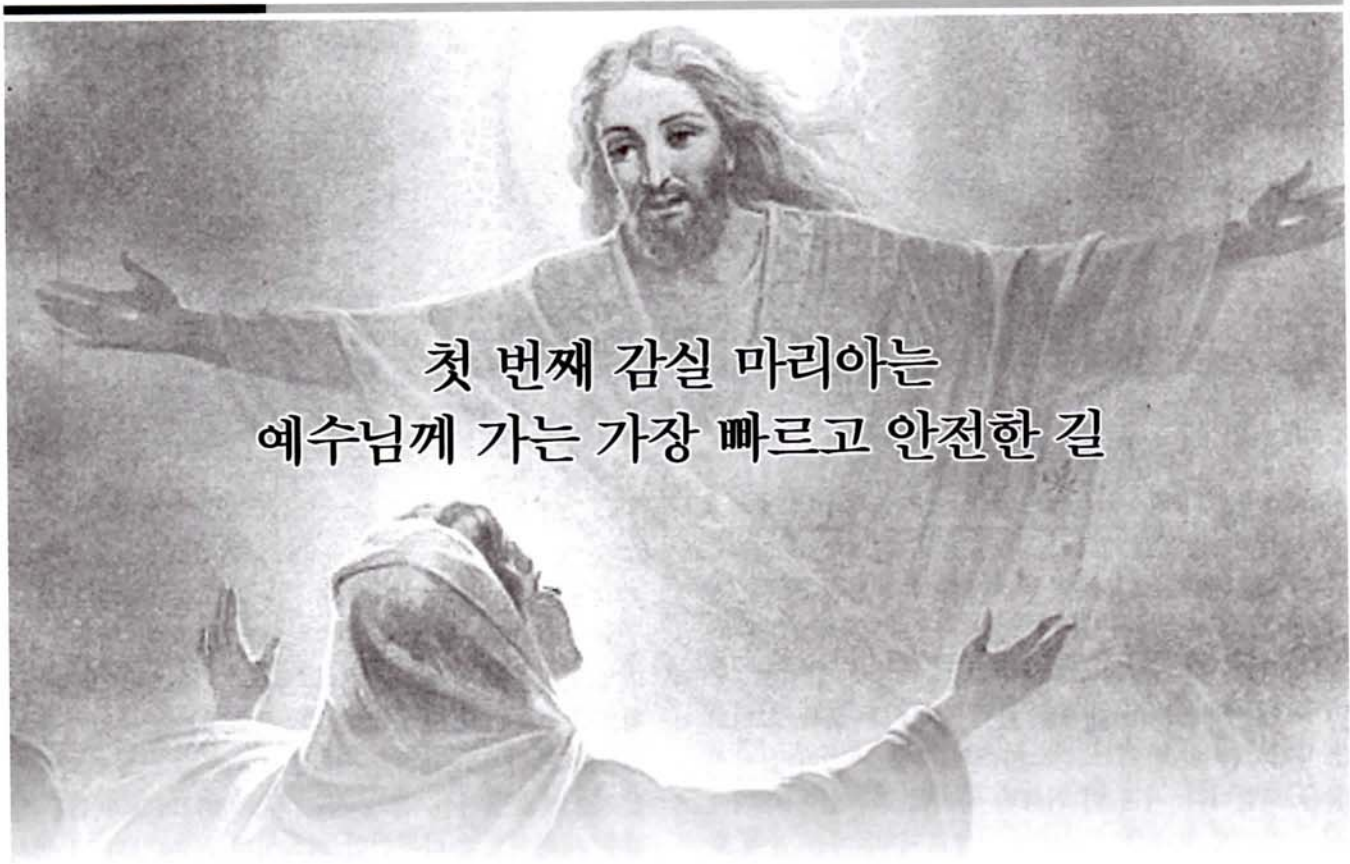
올해 우리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위로를 나누며 살아 왔던 JAKLIAN 섬을 슬픈 마음을 누르며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작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어 우리의 영적 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보다 더 좋고 가장 아름다운 섬인 BADIJ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곳에는 중세부터 있었던 오래된 수도원과 성당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물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많은 일들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의 편지를 쓰며 이 일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마음을 함께하여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선행을 기억하시어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은총을 선물로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우리 가족들과 봉사자들은 2006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복하시고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드리는 저의 감사를 전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제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M

2005년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며 요조 조브코 신부 드림



첫 번째 감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퇴보할 때 성체에 대한 신심도 따라서 퇴색된다. 프로테스탄트적 항거는 주님의 성체 현존에 대한 신앙도 무시하였고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미사 성제도 폐지하였다. 그들은 마리아를 구원 계획에 있어서 불필요한 액세서리로 전락시켰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마리아께서 맡으신 역할은 우리를 당신의 천상 아드님께 완전히 이끌어 가는 것이다. 마리아를 무시하면 그녀의 아드님에게 이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이 막혀 버린다. 오늘날에도 하느님이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주님께 별다른 공경을 드리지 않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언한 분은 교황 바오로 6세였다. 교황은 1967년 파티마 성지를 방문하고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항상 권고했다. 교황은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라는 성체께 대한 대 회칙까지 반포했다. 이 회칙 마지막 페이지에서 교황은 마리아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와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연관성을 강조하셨다. 성모호칭기도에서도 성모님을 "계약의 퀘"라고 부른다. 구약에서 계약의 퀘는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었다.

마리아께서는 태내에 거처를 정하셨던 성삼위 중 제2

위격의 새로운 퀘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감실이 되셨던 것이다. 성체에 대한 흠숭을 증진 시키려고 수도회를 창설한 성 피터 줄리앙 에이마르는 자신의 영성적 자녀들에게 마리아를 설교하고 성체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라고 일렀다. 또 성인은 "여러분이 영성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마리아가 활동하실 수 있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했다.

마더 테레사가 소속한 수도회의 수녀들은 하루에 1시간씩 제대 위에 현시된 성체를 흠숭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집 없는 사람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친다. 마더 테레사는 모든 위험에서 수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성모님이라고 했다. 마더 테레사와 그 수도자들이 매일같이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뿌리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중노동입니다. 아침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멘의 수상께서 우리 수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 한 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수녀님들을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상께서는 저의

성체와 성모님 사이에 신앙의 뜻을 내리자



제안을 받아들여셨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는 800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가 봉헌되고 성체를 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항상 힘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 한 주간도 일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빵의 형상으로 제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그분을 뵈올 수 없는 한, 가난한 이들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분을 찾아 뵈올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모님이 1830년 파리의 뤼 드박에서 현대 성모님의 발현 중 처음으로 발현하셨을 때, 성녀 카타리나 라부르에게 청하시길, 풍성한 은총이 흘러 넘치는 제단 밑으로 다가오라고 하셨다. 이 때 성모님은 루르드의 발현 장소에 성당을 하나 세우라고 하셨다. 이것도 물론 감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과 함께 그곳에서 성찬 전례가 거행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성지 어디서나 그분 단독으로 공경 받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순례자들의 발길을 제단 앞으로 이끄신다. 이것도 그들이 당신 천상 아드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파티마에서는 성모님 발현에 앞서 평화의 천사가 프란치스코와 히야친따와 루시아에게 나타났다. 때는 1916년, 그는 후에 있을 티없으신 마리아의 발현을 준비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 천사가 세 아이에게 황홀한 모습으로 세 번째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성작을, 성작 위에는 성체가 떠 있었고, 이 성체에서 핏방울이 흘러 성작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성체와 성작을 공중에 놓아두고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기도를 세 차례 바쳤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여,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잡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천사는 땅에서 일어나 성작과 성체를 손에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성체를 루시아에게, 또 성작에 든 성혈을 히야친따와 프란치스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속하고 너희 하느님께 위안을 드려라." 프란치스코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감명 깊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그의 생활 속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은 프란치스코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성당에 남아 있으면서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보속하겠노라 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성체께 대한 사랑에 젖어 감실 앞에서 몇 시간씩이나 무릎을 꿇고 성체를 흠송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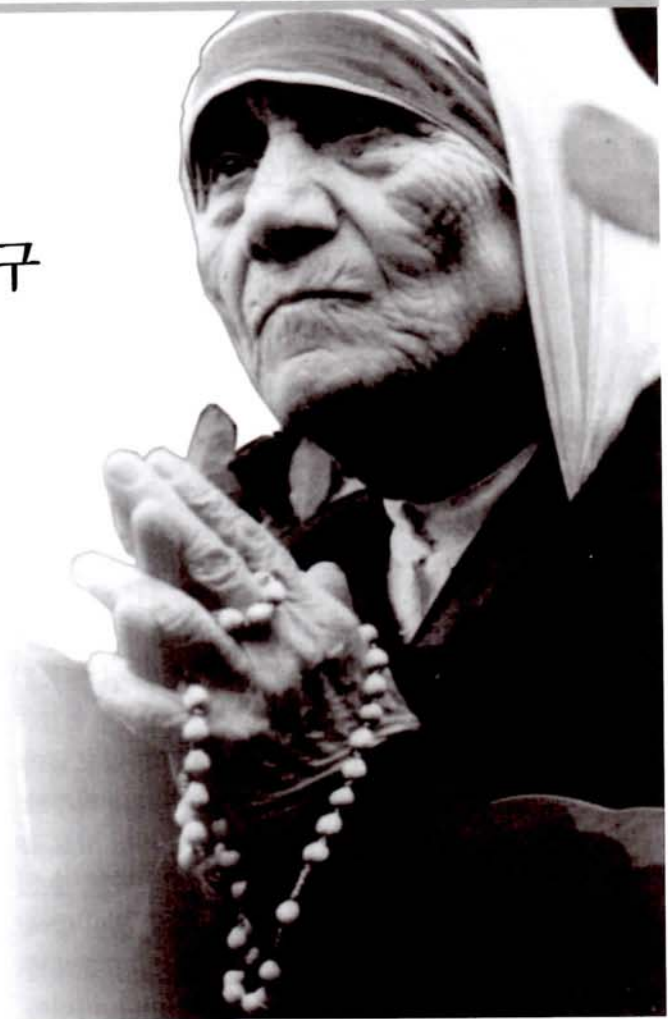
파티마의 성모님과 성체의 밀접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성모님이 요구하신 조건 중의 하나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 조건이란 다섯 달 동안 계속해서 첫 토요일에 미사에 참여하고,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보속하는 뜻으로 성체를 영하라는 것이다. 성 피터 줄리앙 에이마르에 의해서 5월 8일로 정해진 성체의 성모 축일이 파티마의 성모 제1차 발현 기념일인 5월 13일로 옮겨졌다는 것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성모님과 성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주님의 성체 현존에 대한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려면 티없으신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와 성모님 사이에 신앙의 뜻을 내릴 때, 어떠한 적의 세력도 파괴될 것이다. **M**

<마리아 사랑 넷에서 발췌>

평화와 사랑의 도구

마더 데레사



만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과 기도와 희생의 생활 속에서 깊이 예수님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친절을 가져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는 대포나 폭탄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단지 깊은 사랑과 그리스도와 깊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다.

친절과 사랑은 하느님과 합일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야 한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런 지식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우리가 평화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을 섬기게 도와준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야 하지만,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곳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느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우리는 나무와 꽃 그리고 들판의 풀과 같은 자연들이 조용히 자라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별과 달과 태양이 아무 말 없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아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소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다.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활동하면서 더욱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며, 침묵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말은 가슴 속에서 솟아나지 않으면 모두 불필요한 것이다. 하느님의 빛을 보여 주지 않는 말은 모두 어둠을

더욱 크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체를 봉헌하고 섬겨야 한다. 1973년까지 우리 선교회에는 매주 30분 가량의 성체 조배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만장일치로 매일 한 시간씩 성체 조배를하기로 결정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는 할 일이 무척 많다. 몸이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버림 받은 아이들을 위한 집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한 시간씩 어김없이 성체 조배를 한다. 매일 한 시간씩 성체 조배를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간의 사랑도 더욱 관대해졌으며,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배로 늘어 났다는 것이다. **M**

<마더 데레사 자서전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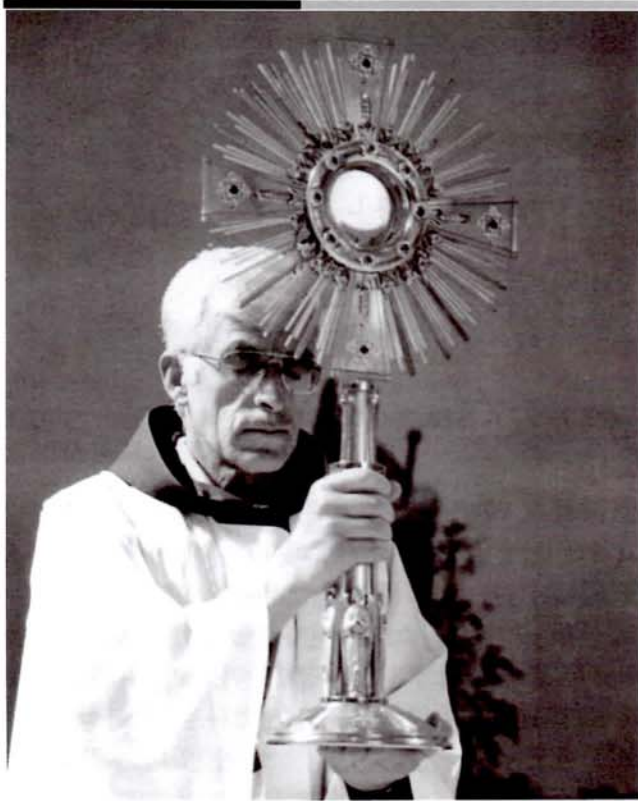
통일만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방에 들어가니, 금방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머리를 뽀뽀 밀은 중년남자가 있었다. 먹지 못하니 성장을 못하여 키가 아주 작았고 오른손은 화상을 입었는지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간 상태였다. 이름은 000, 나이는 43세이고, 가족으로는 같은 나이의 부인과 두 아이가 있으며 함경북도 00시에서 왔다고 하였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란 그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 중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조금 벌어서 가지고 가려고 무작정 왔다고 했다.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이 험악한 중국에 혼자 왔느냐고 물으니, 돈을 못 벌어도 자기가 먹는 만큼의 식량을 다른 식구들이 먹을 수 있으니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을 떠나는 것이 식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겨울에는 집에 있어도 아무 할 일이나 배급이 없기 때문에 집을 나왔으며,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머리를 왜 그렇게 뽀뽀 깎았는가 물으니, 깎은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탈모증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서 그렇다고 했다. 머리를 보니 진짜 그렇다.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돌아가서 식구들과 함께 장사하고 살 수 있는지 물으니, 조선 돈 5십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환산해보니 중국 돈으로 2,000위안이 된다. 속옷부터 내의, 겉옷까지 우리가 준비해 간 옷으로 몽땅 갈아 입히고, 속옷 속에 중국 돈 3,000위안을 나누어 넣었다. 혹시 잡히더라도 몽땅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오로가 준비해간 의료용 반창고로 1,000 위안씩 뽀뽀 묶어서 양쪽 허벅지에 감아주고 내의와 겉옷을 입혀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0위안씩 싸서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주며 혹시 잡히더라도 500위안만 있다고 하고 2,500위안은 죽어도 빼앗기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하기가 죽기 살기로 중국까지 넘어온 그에게는 그 돈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생명처럼 절실할 텐데 말이다. 그리고 뉴욕에서 채 그레고리오 형제님이 주신 비타민과 의약

품, 초콜릿, 사탕 등을 챙겨주었다. 주인집에도 수고했다고 200위안을 주었다. 헤어질 때, 00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천주교 신자들인데 그리스도교 신자 동포들이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주며, 통일이 되면 은혜를 갚으라고 하니 꼭 갚겠다고 하였다. 지금 북한에서는 모든 동포들이 통일만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통일만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다. 말이라도 고맙다. 그 집을 나와 박집사의 집으로 갔다. 요즘 탈북자들이 오는가 물으니, 가끔 몇 명씩 찾아오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경비가 삼엄해 많이 오지 못한다고 하였다.

탈북자들이 오면 알려달라고 하고, 어제부터 북한에서 나와 숨어있는 북한 아주머니 두 분이 있다는 곳으로 가기로 하였다. 택시로 15분 정도 가서 칠곡리라는 산골 마을에 가니, 30세 된 북한 자매가 어느 농가에 숨어있었다. 그 농가의 주인 할머니는 인자한 인상으로, 북한 아주머니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방에 들어가서 현수가 비디오를 찍으니, 북한 자매는 놀라서 얼굴을 가리며 찍지 말아 달라고 울먹였다. 이름은 000이고 올해 나이는 30세라고 한다. 중국에 온 지 두 달 되었는데, 이 집에서 계속 숨어 지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주면 대부분 받은 주인집에 빼앗기기가 일쑤이다. 말을 계속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00이에게 주인집 모르게 돈을 주어 바로 북한으로 보낼 수 있을까 궁리하였다. 왜 중국에 왔느냐고 물으니, 무슨 일 이든 해서 돈을 벌어서 가야 한다고 했다. 연길에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함께 가자고 하니, 우리가 무섭다면서 싫다고 했다. 그러면 나도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하니 주인집 할머니도 옆에서 그곳에 가라고 달랬다.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보라고 하고 그 집을 나오며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 집을 나와서 또 다른 집에 숨어있는 북한 아주머니를 만나러갔다. **M**



성 시간에 주시는 은총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신경남 신부 옮김

기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장황하게 기도하거나 해치우듯 기도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비판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에 비유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신론적인 기도, 곧 하느님이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끼꺼이 내어주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찾는 것이며 그 밖의 것은 거저 주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시련 중에 그분의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마태 6:7-8)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 기도는 '하느님 없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위기'를 고통스럽게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이 하느님을 찾았던 바로 그 작은 감실에 그분을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분과 만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곧 우리의 신앙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참으로 뜻깊은 기도문과 기도서 그리고 많은 성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대인의 영혼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성체조배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적합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대신 항상 무언가를 청하는 기도는 하느님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체조배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제단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오로지 그분만을 찾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성시간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분, 우리가 흠송하고 찬양하는 분, 우리가 찬미하고 감사 드리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체조배는 신앙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침묵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을 관통하며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평온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숭배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의 현존에서 더욱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성시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공백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우선권을 두는 것, 그분께 귀기울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으며 의식적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체조배를 통해 당신 백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타인 그리고 우리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가 파멸의 길을 치닫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일은 인류가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에서 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폭력과 파괴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식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세계는 온갖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평화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자멸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 안에 생명에 대한 깊은 열망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현존의 놀라운 빛에 자신을 내던질 때 비로소 극심한 타락에서 구원되며 이 세상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당신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통해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

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흠송하라고 힘차게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밤도 이 자리에 있어 주어 특별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제대 위의 지극히 복된 성사를 끊임없이 흠송하여라. 나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흠송할 때 언제나 함께 있다. 너희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리라. (1984년 3월 15일)

매주고리에 본당 공동체는 순례자들과 함께 목요일 저녁 미사 후,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 밤늦게 성시간을 거행함으로써 이 메시지에 응답해 왔습니다. 소성당은 하루 내내 개방되어 성체를 현시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고 한결같이 현존하시는 그분을 발견하며 끊임없이 그분께 마음 열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다른 이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모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것을 바란다. 너희 삶 자체가 온통 기도가 되길 바란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너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에 앞서 사랑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1992년 11월 25일) M

이 기도문은 슬라브코 바르바르치 신부님께서 약 20년간 매주고리에 본당의 성시간을 인도하였던 기도문 모음집인 "Adore My Son with Your Heart!"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중 일부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행되었으며 미국과 한국의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전국 성마오로딸 및 성마오로 서점, 해화동 가톨릭 서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 루카 2,34-35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 찢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묵상 기도: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아드님과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던 성모님! 아드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말 없는 아드님의 눈에서 확고한 신념을 보셨습니다. 저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수난을 스스로 택한 아드님의 굳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어머니의 눈을 보시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모님! 저희에게도 성모님의 굳은 믿음과 순명의 정신을 심어주소서.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회피했고 만났다 해도 형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을 소홀히 대했던 저를 용서해주소서. 이제 뉘우치며 기도하오니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앞으로 제가 고통에 부딪칠 때나,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짜증내지 않을 것이며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특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소외 당한 불우한 사람들을 구해주소서. 예수님! 메주고리에 십자가 산을 오르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들 모두들 만

나주시어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없애주시고 변화된 삶과 생활로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성모님! 성모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왔습니다. 십자가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시어 좋은 순례의 열매를 맺어주소서. 특히, 예수님과 성모님이 서로 만나셨음을 묵상하는 이곳에서 저희와 모든 순례자들이 모성애가 넘치는 성모님을 만나 어머니의 무한한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희망에 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소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 또한 사랑으로 들을 줄 모르는구나.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이지, 너희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있지 않음을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들이 사랑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모든 사람들 안에 영광스럽게 생활하고 계신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성모님! 이제 저는 제게 맡겨진 십자가를 사랑으로 기꺼이 지며, 십자가를 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만날 것을 굳게 결심하오니 도와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5 처로 향하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M** 다음호에 계속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메주고리예! 은총의 이름

프랑크 크램베르거 주교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교구장)

2001년 11월 10일, 슬로베니아 푸이스카 고라에서의 미사 강론 중에 주교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친구이자 순례자인 여러분 모두와 더불어 대단히 훌륭하신 프란치스코회 사제 요조 조브코 신부님께 문안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를 메주고리예의 신비로 가까이 이끌어 줍니다. 이제 메주고리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아니라 성모님께서 찬란한

빛을 밝혀 주시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메주고리예는 넘어진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고, 신앙을 찾아 순례하는 모든 이들이 발견하는 별입니다. 성모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별빛은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이끌어 줍니다. 내가 있는 교구가, 아니 온 슬로베니아와 전 세계가 메주고리예와 같이 된다면,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M

메주고리예는 하느님 나라의 선교 본부

셴보른 추기경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교구장)

2002년 12월 1일, 비엔나의 성 스테파노 대성전에서의 교리교육 중에 셴보른 추기경은 메주고리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판결이라는 관점에서 메주고리예에 대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메주고리예는 모

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강렬한 선교 본부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나는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수 천, 수 만의 순례자들이 교회의 성사 안에서 치유되며 기도와 고해, 회개, 화해, 그리고 깊은 믿음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M

나는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코라도 우르시 추기경 (이탈리아)

고령으로 주교직을 사임한 코라도 추기경은 세 명의 신부와 함께 평화의 모후 성지인 메주고리예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는 나폴리를 비롯한 몇몇 교구의 대주교를 역임했고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으며 교황 선거를 위한 비밀회의에 두 번 참여했었다. 그가 집필한 "묵주기도"라는 소책자는 여섯 번째 판이 출판되었는데 그는 책자에 "메주고리예와 다른 여러 곳에서 복되신 성모님께서 발현하십니다." 라고 썼다. 코라도 추기경은 나폴리로부터 약 1,450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려 메주고리예에 도착하자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코라도 추기경은 발현 목격자들을 만나고, 성모님의 발현에도 함께 참석했다. 메주고리예에 대하여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성모님의 발현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완전하게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목격자 마리아 파블로비치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동안 함께 자리했던 추기경은 "성모님의 기도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다. M



열 가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미리아나의 증언

메주고리에는 6명의 발현 목격자가 있다. 그 중 한 사람인 미리아나 드라기체비츠 쏘도는 1981년 6월 24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게 되는 두 번째 증인이다. 그녀는 사라예보 대학을 졸업했고 프란치스코회의 영성 신학자이며 6명의 증인의 지도 신부였던 고 슬라브코 바베라치 신부의 조카인 마르코 쏘도와 결혼하여 메주고리에는 살고 있다. 1982년 12월에 성모님의 매일 발현이 끝난 미리아나는 성모님으로부터 열 가지의 비밀을 받은 첫 번째 증인이다. 성모님께서서는 그 후 매년 그녀의 생일인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미리아나가 미래에 일어날 열 가지 비밀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자 매월 2일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위로해주셨다. 미리아나는 "당신이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열 가지의 비밀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네,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성모님께서서는 미리아나에게 불에 타지도 않고 찢어 지지도 않는 하늘 나라의 신비한 양피지를 주셨다. 이 양피지에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내려질 징벌에 관한 열 가지 비밀이 일어날 각 날짜와 요일이 적혀있다. 그 내용은 이 세상에서는 해독할 수 없는 글로, 때가 되면 오직 그녀만이 읽을 수 있다. 미리아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씩 이루어 질 때가 되면 열흘 전에 그녀의 영적 지도를 맡고 있는 페타르 류브치 신부에게 전한다. 페타르 신부는 그 메시지를 받으면 이레 동안 빵과 물만으로 단식을 한 후 삼일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세상에 발표한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날 그 시간이 와도 많은 이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1987년 1월 28일 성모님께서서는 사

라예보에 있던 미리아나에게 예외적으로 발현하셔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영혼을 순수함으로 이끌어 하느님께로 데려가려고 왔다. 발현 초기에 너희는 내가 선택한 아이들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였다. 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메시지를 받아 들여 내가 요청해 왔던 것을 시작하였으나 오래 지속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와 나의 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도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무나 쉽게 사탄이 너희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너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주 이를 외면하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나의 얼굴에서 닦아다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 오너라.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가족 모임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죽은 가족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여 그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풍성한 식탁에 있는 빵 한 조각을 요청하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마라! 사탄은 이런 것에서도 너희들에게 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더 이상 사탄에게 너희 자신을 허용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여라! 기도로 돌아오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비밀의 일부를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것들도 이미 너희에게 허락된 큰 은총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느냐?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나는 너희를 꾸짖고 싶지는 않단다. 너희를 다시 한 번 기도와

단식과 보속으로 초대하고 싶을 뿐이다! 만약 너희가 단식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총이 내려지기를 바라도 좋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을 듣고 기도하며 내가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여라."

미리아나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얻으신 하느님의 왕국을 하느님의 자녀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비밀이 실현될 때 사탄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20세기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세력을 펼치며 지금 극심하게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미리아나는 사탄이 알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1)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한 세기(20세기) 동안 경고를 내리고 격려해주며 이 엄청난 어둠의 시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모성애로써 보살피 주도록 당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 마리아를 보내 주시리라는 것

2)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크고 많은 은총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리라는 것

3)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은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는 이로써 성실하게 남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리아나에게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고 말 것들을 선택하여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들은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일들을 모르고 있어요. 사탄의 또 하나의 이름은 고통입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지만 오히려 모든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파괴하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느 날 나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사랑과 자비로 저 세상에서의 이름답고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M**

(Grazie Cari figli, Per alla mia Chiamata/Visions of Children /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예에서 발췌 정리) (미리아나의 메시지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편집실 주 -)





뉴욕 성공회 신부에서 가톨릭 신부로

베드로 조르자 (Pietro Zorza) 신부

8월 중순 나는 요조 신부가 전하는 성모님께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하여 많은 다른 사제들과 함께 성당 제단 위에 있었다. 그의 증언이 끝나고 우리는 미사 공동 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의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한 사제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가톨릭 신부가 아니라 영국 성공회 신부이기 때문에 미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를 내 뒤에 앉게 했고, 그가 진실한 신앙심과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메주고리에 성당 밖에서 내가 그 성공회 사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뉴욕에 돌아가면 가톨릭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날은 몹시 더운 단식일이었고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그는 물병 하나를 들고 메주고리에에서 있었던 자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성공회 교회의 사제 지미 니콜라스입니다. 나는 87년 영국의 몇몇 사제들과 함께 이곳 메주고리를 찾아 왔습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성모님을 향한 깊은 신심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1987년 7월 28일, 사제관에서 이반에게 성모님의 발현이 있을 때였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는 그 방에 수용인원 이상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 목격자 이반의 곁에 있었습니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대단히 더웠습니다. 나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성모님이 이반에게 발현하셨을 때 나는 크나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내가 받은 그 기쁨과 빛은 도저히 말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곳에서 받았던 그 기쁨과 빛은 계속 저를 따라 다녔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메주고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이곳을 방문했고 지금

또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으며, 10월에 성공회 교회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이곳에 올 계획입니다.

메주고리에 이야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적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나는 올해 부활절 때 이곳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내 마음이 성모님께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도 그 선물을 달라고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친밀감입니다. 성모님은 나를 이 장소에 데리고 오시어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으로부터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성모님은 내 마음 안에 이곳이 나의 집이고 나의 가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집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여기를 다시 찾아 와야만 했고, 큰 신뢰심을 가지고 동정녀에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는 15년 동안 일하고 있는 지역 평의회 멤버로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메주고리로 왔고 성모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순례가 끝나 뉴욕으로 되돌아 갔을 때 그 문제는 아주 잘 해결되어 있었고, 나는 성모님께 감사

드리기 위하여 메주고리예로 다시 올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년 여름 메주고리예에 다시 온 후부터 성모님께서 나를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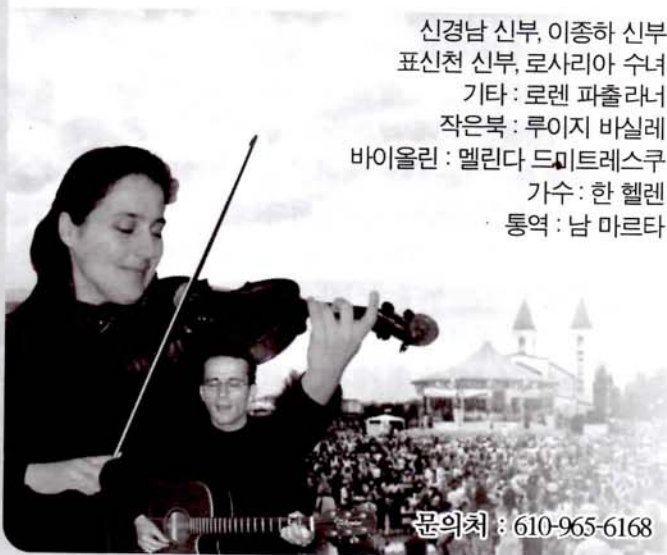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 어느 가톨릭 교구에 의지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에게서는 매주 묵주기도를 바치러 가는 본당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나를 환영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본당 역시 내가 받아들인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공회는 성모님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그분의 중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국 교회가 로마에서 이탈되었을 때 생긴 재난입니다. 영국 교회는 사도적 계승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일은 교회 안에서 성모님의 활동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라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

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미국 성공회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올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메주고리예에 대해 개방되어 있고 나를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톨릭 주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M

(Grazie Cari figli, Per alla mia Chiamata /사랑하는 자녀들아 에서 발췌)



메주고리예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의 성시간



신경남 신부, 이종하 신부
표신천 신부, 로사리아 수녀
기타 : 로렌 파출라너
작은북 : 루이지 바실레
바이올린 : 멜린다 드미트레스쿠
가수 : 한 헬렌
통역 : 남 마르타

문의처 : 610-965-6168

- 2월 13일 (월) NY. 퀸즈 성당
☎ 718-321-7005
- 2월 14일 (화) NJ. 메이플우드 성당
☎ 973-763-1164 (전 오렌지 성당)
- 2월 15일 (수) PA. 성 안토니오 성당
- 2월 16일 (목) PA. 어머니 마을 음악기도회
☎ 610-965-6168
- 2월 17일 (금) MD. 메릴랜드 한인성당
☎ 410-389-0642
- 2월 19일 (일) CA. 세클라멘트 성당
☎ 916-743-3520
- 2월 20일 (월) LA. 성 바오로 성당
☎ 323-730-1499
- 2월 22일 (수) CA. 성 토마스 성당
☎ 714-772-3995

어머니 뵙고 싶어 왔어요

김서영 미카엘라 (캐나다 켈거리 한인 성당)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라고 노래 한 시인이 있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생각 할 때마다 늘 뇌리에 떠오르고 했던 그 시처럼 나에게는 현실로 존재 하는 그 절절한 그리움을 향해 어느 날 나는 훌쩍 떠나 먼 메주고리예로 떠났다. 독일공항에서 그레고리오 형제 님과의 반가운 만남과 출발의 연속으로 곧 Split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가의 꼬불거리는 산중턱을 넘어 가고 있었다. 어느 새 어둠 이 내리고 석양에 반짝이는 잔잔한 바다와 해를 바라보 며 정말 성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순례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하는 설레임과 기대를 모아 묵주기도를 했다. 그때 남그레고리오 형제님께서 "시골의 고향에 가면 어머니께서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미중하시고 품에 안아 주시듯이 성모님께서도 당 신을 만나러 와주신 여러분들을 반기시며 지금 이 버스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시는 말을 들을 때 그리운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여독을 씻어주고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 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메주고리예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새벽 몇몇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모님이 처음 발현하신 산으로 향했다. 숙소를 나와 일행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며 가는 순간 하얀 털을 가진 멍멍이가 나타났다. 한 자매님이 "성모 님이 보내셔서 왔니? 반갑다." 하고 쓰다듬는 모습을 보 는 순간 책에서 읽었던 일들의 현장에 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라도 중간에서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괜한 걱정을 하였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우리 일 행들 길을 안내하던 멍멍이 천사는 마을을 지나 발현 산 입구에 도착하자 어느 새 사라지고 없었다. 성모님께서 보내주신 길잡이 천사임을 깨닫고 벅찬 마음으로 발현산 을 바라보았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캄캄하고 매끄러운

돌산 길을 맨발로 오르는 자매를 따라 나도 신발을 벗고 기도하며 올라갔다. 아직도 어두운 발현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가자 산중턱의 한쪽에 희미한 모습의 물체가 보였다. 아, 성모님이시구나... 성모님께서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미 카엘라가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불러 주셔서 감사 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다. 잠시 후, 김요한 형제님이 '예수님 발 좀 만져보세요' 라는 말에 그 곁 에 있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많은 순례자 들이 만졌는지 발이 반지르 하게 닳아 있었다. 나도 예수 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바닥이 아픈 지도 모르고 맨 앞에서 내려왔다.

4박 5일로 예정된 요조 신부님과의 침묵 피정을 하 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성 가정 고아원으로 향 할 때 하늘에 나타난 태양의 기적과 아름다운 무지개는 내 작은 가슴에 담기에는 너무 벅차고 넘치는 체험이었다. 하느님 과 성모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나 여기 있다." 라고 하시더니 피정 중 내내 '내가 너를 손으로 빚어 만 들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라는 말씀으로 나를 사랑해주시는 나의 부 모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성모님은 당신을 만나러 온 딸에게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 머니이셨다. 피정을 하며 마음 깊이 차오르는 기쁨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주 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확인하 고 싶어 방황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어리석고 부질없 게 느껴졌다.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 갈수록 내 몸과 영혼이 조금씩 맑고 투명하게 닦여가는 내 마음을 보면 서 그 동안 존재의식 없이 살면서 저질러 왔던 지나 온 삶에 대한 성찰과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전 생애를 통해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들이 나의 허물을 씻어



주고 거듭난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이 되어 메마른 내 영혼과 마음을 고요한 평화로 가득 채워주었다. 침묵피정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이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살아 왔으며 말 때문에 지은 죄와 시끄러운 세상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침묵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환하게 변화되는 일행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마치 이 땅에 오실 하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문득 내가 갖고 있는 목주가 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나에게 표시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메주고리에에서 잊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저녁 예절이다. 매일 저녁 3시간씩 이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 각 나라말로 하는 목주기도의 합창과 미사 후의 성시간은 말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신비로움 속에서 모든 이들이 성모님과 일치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미로 가득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머무는 그 시간은 마치 세상이 정지된 듯 한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어머니의 품속 같았다. 측량 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피내는 듯한 신부님들의 심오한 묵상과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게 해주었다. '주님 사랑해요~를 한국말로 부를 때는 정말 그 분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쁨의 절정을 느꼈다. 일행들과 함께 단체 촬영을 할 때였다. 본당 앞에 모셔진 성모님 상 앞에 휠체어를 탄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연민과 측은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소녀의 치유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다. 그 소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성모님 상 앞에서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처럼 한 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기적을 보았다! 그 순간 이제 나도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나 두려워 말고 주님을 위해 성모님이 원하시는 지향대로 힘차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마지막 날, 숙소에서 촛불기도회와 나눔의 시간에는 윤신부님과 크리스티나의 반주에 맞춰서 함께 노래 부를 때 우리는 그 동안 너와 나 가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 있음을 알았다. 아쉬운 마음으로 메주고리를 떠나는 날, 또 다시 보여주시는 태양의 기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의 결심을 격려하시는 하느님을 느꼈다. "하느님, 집으로 돌아가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사랑 받는 딸로 열심히 노력 할게요." 드브로브닉의 아름다운 성곽도시와 유서 깊은 성당에서 드린 아름다운 미사와 평화는 메주고리에 순례 후 맑고 깨끗해진 영혼들을 모두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 빛이 반짝거리는 평화로운 바다를 보면서 내 몸과 마음도 하느님이 주시는 신앙의 빛으로 평화롭게 빛나기를 소망해보았다. 12박 13일 동안의 메주고리에 순례를 돌아보면 따뜻한 봄날 파릇한 풀밭에 어미 닭을 쫓아 쪼르르 행진하는 노란 색의 아기 병아리들이 연상된다. 메주고리에는 성모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앞장서시며 우리들을 가장 안전하게 하느님께로 인도해주는 길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기도, 영성체, 성서묵상, 단식과 고해성사의 무기를 우리 손에 꼭 쥐여주셨다. 집으로 돌아 온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충실하며 만나는 형제자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 보리라 다짐해본다. 향긋한 커피 내음과 함께 성모님을 회상시켜 주는 선율이 흐르는 소박한 이 시간,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었던 사랑하는 분들을 떠올려보는 이 시간이 참으로 평온하고 행복하다. **M**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해주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 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그분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캐나다 : 이준용 콜배 (403-288-0469)

한 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허안젤라 (017-785-3535)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리라.”

장성자 마리아 (서울 대교구 한강 성당 교우)

자식 사랑을 하면 꼴불견이라지만 우리 하느님을 자랑 하는 건 괜찮은 일이겠지요?

그럼 그렇게 알고 우리 하느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 자랑 좀 하렵니다. 저는 정확히 암이라고 확정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건강 검진을 한 의사에게 “골반 초음파 검사 결과 양측 난소 종양이 의심되니 난소 안에 병적인 낭종 혹은 종양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인과 진료 및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아득하고 두려운 마음은 환자가 되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요. 믿겨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둘러 진료 예약을 하였지만, 일주일 뒤로 날짜가 잡혔고, 막막한 마음으로 있던 그 일주일 사이에 저에게는 참으로 놀랍고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일이 지난 후 찾아간 병원에서는, 자궁의 근종은 진료 의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있다고 했습니다만, 양측 난소는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MRI 검사도 했지만 역시 난소에는 종양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에 대한 수술을 하고 퇴원 후 빠르게 회복되는 지금은 하루에 한 시간씩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또는 은총, 축복, 감사라는 단어를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시는지요?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요즘엔 참으로 자주 씁니다. 그 단어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걸 어찌 하겠습니까? 누가 알려주거나 시킨 적은 없지만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랐더니 그 길이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옥수동 성당의 성시간에 참석하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옥수동 성당을 처음 찾던 날, 미사 때 입당 성가 노래는 처음 듣는 성가였는데,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노래라고 하던데... 마치 힘들 때 엄마를 만나자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딸처럼 그렇게 울

었습니다. 미사 후에 이어지는 성체 현시 시간. 촛불만 밝힌 채 어두운 성전에서 묵상과 기도, 성가가 반복되는 중에 갑자기 아랫배가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왔습니다.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아랫배와 양측 난소, 세 곳이 찌르듯이 아파서 양 손으로 배를 감싸 쥐고 있으니 얼마 후 차츰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성전에 불이 들어오고 성체 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광을 높이 들어 올리시고는 통로 쪽에서 시작하여 중간 중간 멈추시고 강복을 주시더군요. 마침내 제가 앉은 쪽으로 성광을 높이 들고 강복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신부님으로부터 눈부신 빛이 나면서 순간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저 분은 신부님이지만 예수님을 대리하는 분이 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눈부신 광채에 둘러싸인 예수님이셨고, 조금 전까지의 신부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은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간절히 ‘주님! 제게 머물러 주세요. 주님!! 부디 제게 머물러주세요.’ 그것만 되 뇌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경 속의 자캐오가 그랬듯이 그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눈 앞이 환해지는 것이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었고, 순간 오른쪽 귓가로 가볍게 스치듯이 아주 고요하고 낮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리라.” 성시간을 마치고 마당에서 신부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오한이 나고 몸이 떨리면서 이가 딱딱 마주치도록 추웠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그 다음날 아침. 밤새 입 안이 훌쩍 벗겨지고, 입 가장자리는 헐어서, 입술에는 물집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냄새가 지독한 방귀가 한 이틀 정도 나왔고 트림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성령께서 치유해주시는 과정으로 믿



고 혼자 조용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를 멀리하게 되었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묵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행복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체 강복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저를 부러워했습니다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부끄럽게도 저는 성체를 밀가루 떡이지만 축성을 하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아주 교리적인 이해와 하나의 상징처럼 여겼던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고서는 믿는 저의 약한 믿음을 측은히 여기시어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신 것이 아닐런지요... 이제는 성체를 모실 때면 전과는 달리 마음이 떨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성체 안에, 감실 안에...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이면 충분했듯이, 진료 날짜만을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어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는 데에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중풍병자, 나병 환자, 하혈하는 여인도 고쳐 주셨지만, 오늘날에도 그 분께서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시고도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기도 모임이나 치유미사, 피정, 또는 성지 순례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을 고쳐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아름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 “예, 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어달 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더 착하게 살아 오지도 못한 평범한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듯이, 이 은총은 여러 분께도 언제나 열려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수동 성당의 신 경남신부님께서서는 “동방 박사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던 별처럼, 성체는 우리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주는 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체를 통해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하느님께로 다가갈 수 있겠지요. 저는 고백 성사의 은총과 성체 성사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가톨릭 신자여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함께 해주셨던 많은 은인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길입니다.
누구나 가야 할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지
않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 대교구 사목국에서 예비신자 교리반을 위해 만든 유인물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 자랑하기를 마칠까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M**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장혜영, 오영숙,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Queen of Peace



- gives us the understanding of our Lady's presence among us,
-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signs of the times,
- enables the Word of God to dwell in our hearts,
- shows us how God loves His people, and
- leads to the joy in the encounter with God who infinitely loves His creatures.

OUR LADY'S MESSAGES WHERE SHE MENTIONS THE BIBLE - HOLY SCRIPTURE

October 18, 1984

"...Today I call on you to read the Bible every day in your homes and let it be in a visible place so as always to encourage you to read it and to pray..."

February 14, 1985

"---Every family must pray a family prayer and read the Bible!"

June 25, 1991

"... If you pray, God will help you to discover the true reason for my coming. Therefore, little children, pray and read the Sacred Scriptures so that through my coming, you discover the message in the Sacred Scripture for you..."

August 25, 1993

"... Only by prayer can you understand and accept my messages and practice them in your life. Read the Sacred Scripture, live it, and pray to understand the signs of the times. This is a special time, therefore, I am with you to draw you close to my heart and the heart of my Son, Jesus. Dear little children, I want you to be children of the light and not of the darkness. Therefore, live what I am telling you..."

August 25, 1996

"Listen, because I wish to speak to you and to invite you to have more faith and trust in God, who loves you immeasurably. Little children, you do not know how to live in the grace of God, that is why I call you all anew, to carry the word of God in your heart and in your thoughts. Little children, place the Sacred Scripture in a visible place in your family, and read and live it. Teach your children, because if you are not an example to them, children depart into godlessness. Reflect and pray, and then God will be born in your heart, and your heart will be joyous..."

January 25, 1999

"... Put the Holy Scripture in a visible place for your families, read it, reflect on it, and learn how God loves His people. His love shows itself, also, in present times

Message of January 25, 2006

"Dear children! Also, today, I call you to be carriers of the Gospel in your families. Do not forget, little children, to read the Sacred Scripture. Put it in a visible place and witness with your life that you believe and live the Word of God. I am close to you with my love and intercede before my Son for each of you.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 * * * *

Thought from the Bible

In Her messages, on several occasions, the Queen of Peace has called to the reading of the Holy Scripture. According to Her words, the Bible:

- encourages us to pray,

because He sends me to call you upon the path of salvation...

September 25, 1999

"...Today again I call you to become carriers of my peace. In a special way, now when it is being said that God is far away, He has truly never been nearer to you. I call you to renew prayer in your families by reading the Sacred Scripture and to experience joy in meeting with God who infinitely loves His creatures..."

TESTIMONY

CALEB, WITH HOPE

Lauren and I married on May 29, 1999, and we had many hopes and dreams about our future. We wanted a large family since I was an only child and Lauren had just one brother. We planned exactly when we wanted to have children. There would be lots of travel during the first two years. During the third and fourth year, we would start having kids and we even planned out the specific years so that we would be done having children before Lauren hit 35.

In February 2001 Lauren got pregnant and we were very excited. However, during our first checkup, the doctor diagnosed a miscarriage. We went for a second opinion, and the result was the same. We went back home broken, disappointed, and could not believe this was happening. It was not supposed to happen this way. However, we were comforted that my friend also had a miscarriage with their first child, and now had two healthy boys. Also, the doctors said it was common for woman to have at least one miscarriage. Several months had passed after the miscarriage, and we decided to try again. We were scared, but very hopeful that things would work out for us.

In August 2001, Lauren was pregnant, again. This time our first doctor visit went well, and the pregnancy was going according to plan. Lauren and I were so relieved and

so grateful to God. During the fourth month, the ultrasound showed that the baby was a boy, and we knew exactly what his name would be, Caleb. Since college, Lauren had always been fond of the name Caleb, because the name sounded cool and there weren't many Korean boys named Caleb. Then on a bright and clear Saturday in December, our five month doctor visit proceeded as usual. The nurses checked to see Lauren's blood pressure and weight gain. The doctor would ask how Lauren was feeling. Then he began the ultrasound session and, normally, he would flip through various screens rapidly. Today, however, the doctor flipped through a few screens and then, suddenly, he kept looking at one screen repeatedly. At this point, Lauren looked at me during the ultrasound, worried and helpless. The doctor looked at us and, before he spoke, he took a deep breath. He diagnosed Caleb with Spina Bifida. Two other medical opinions later, it was not just Spina Bifida, but multiple complications that would, among other things, leave the child paralyzed and mentally handicapped.



We were shocked and did no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The doctors recommended that we abort Caleb right away. How could this happen to us? Why was God doing this to us? Is He punishing us? I thought He was a God of love? We had so many questions and did not know what to do. Should we abort Caleb? After much prayer and discussion, we decided to put our faith in God and give Him an opportunity to intercede and heal our baby. Caleb's heart was beating, and Lauren could feel the flutters in

her womb as he moved. How can we decide to end his life without giving God and Caleb a chance? We incorporated many people, church members, friends, and pastors to pray and intercede for Caleb. Many of them fasted and prayed for us daily. We even reached out to a well-known Christian author, Wayne Weible(?), and he agreed to pray for our Caleb everyday. We also went to Kansas City, Kansas for a healing conference, and our Pastor Danny and some of our prayer network friends came with us to support us.

The love and support that we received from many people were amazing. We had to fight to keep a semblance of faith, because we often wanted to give up hope due to the

exhaustion from battling doubt constantly.

Shortly after the initial diagnosis, one member of our intercessory network, Mrs. Ellen Ross, mentions the story of Abraham for us. I wrote in my journal on December 15 that now I am feeling what Abraham had to go through when God asked him to sacrifice his only son, Isaac. Abraham trusted in the goodness and sovereignty of God. He just believed that God was good. God loved him and God was sovereign. It is this complete faith in the goodness of God which allowed Abraham to willingly sacrifice his only son. It is a lesson that when times seem their worst and most confusing, that is when we watch out for God to come through. Several weeks later Mrs. Ross calls back and, as she prayed for Caleb, she felt drawn to Hebrews 11 for us. In Hebrews 11, it speaks of Abraham's faith, and that he believed God would provide. In fact, it suggests that Abraham had such faith that he believed that God could raise Isaac from the dead if necessary. Abraham trusted in the love of God for him so entirely that even if he took the life of his only son, Abraham believed God could raise him from the dead anyway. For Abraham, obedience to his God was paramount because his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loved Abraham dearly.

A few weeks later, Lauren and I attend Joy's Friday night LOG service. At the end of the service, David Han comes up to me and shares that, as he was praying for us, he felt God prompting his heart, that Abraham was a friend of God and that we, Lauren and I, were too. He was not sure if that meant anything to us, but he felt that God was asking him to share that with us. We were encouraged by these references to Abraham because at the end of Abraham's story, Isaac did not have to die.

From January to April, each doctor's visit was agonizing. We went, hoping the doctor would see something different and that Caleb was totally healed, but his condition was the same. The doctors recommended a diagnostic procedure known as amniocentesis to determine the genetic flaws that might have led to Caleb's condition. The amino results stated that Caleb had normal chromosomes and, therefore, provided no answers for Caleb's condition. We were now more confused than ever. However, we just prayed, prayed, and prayed. Every morning, Lauren and I would get on our knees and just pray, cry, and scream that our son would be healed. Even while we were driving, we would lay our hands on the womb and pray for Caleb. Finally, on the eve before Lauren's scheduled C-section, we spent the night crying and praying. Caleb was born on May 1, 2001. There were more complications with Caleb that were not seen from the ultrasound. We were able to spend some time with him; playing with his fingers and watching him yank the oxygen tube with his hand. We could see that he was

uncomfortable with the tube in his nose. He looked a lot like me, but he had Lauren's skin. Even though we wanted to spend more time with him, we could see that he was struggling and that we should let him go. Pastor Danny was there and he was able to baptize Caleb. Caleb went home to God at 10:30 A.M.

I did not know what to do next. There was Lauren with C-section stitches on her abdomen, but no baby to hold. I was trying to be strong for Lauren because I was afraid that she would fall into deep depression. I knew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her since she carried Caleb in her womb for nine months and felt his every move. After the funeral, Lauren and I were an absolute wreck trying to understand why God did not do a miracle. Where was the God of the Bible? In every book of the Bible, there is some kind of miracle, both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When we needed Him most, where was He? Could He not hear the prayers that stretched across the country? Why the references to the story of Abraham if He was not going to save my son?



The last thing I wanted to do was pray. I felt betrayed by God and I really doubted His goodness. I really did not like God at that moment, so I did not want to spend time with Him. When I did pray, it eventually turned into venting at God. However, one morning, I just felt the need to pray. As I prayed, I had this strong impression in my heart that basically said; Christianity is really an exploration into a relationship with God. The fruit of this relationship ultimately leads to being more like God, Himself. The more you get to know God, the more you become like Him. So, part of being like God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aspects of His character. One aspect is to understand God's pain as He gave up His only Son. It is one thing to give your own life for another, but it is wholly different to give up one's only child for the sake of others. That in essence is what God asked of Abraham, to go through the emotions of sacrificing his only son. So I thought, perhaps that is what God asked of Lauren and myself. It was not just so that we would lose a child, but that we would understand God's pain and ultimately the depth of His love as He gave up His Son, Jesus. This sounded good, but maybe I was just making this up to make myself feel better. I was in so much pain it was hard to tell

what an insight from God was and what was my mind trying to rationalize this terrible experience.

In January 2002, Lauren and I attended the JCF winter retreat. Bob Hartley was the speaker and, during the retreat, Bob shared some prophetic words for specific people. He had a word for us. He described his family's experience during their 4th miscarriage. Throughout the pregnancy, they had felt certain that God would finally give them a healthy child, but that did not happen. They lost the baby when his wife was six months pregnant. After just one week, Bob was scheduled to go speak at a conference. Bob had no desire to go, but this was scheduled months ago, and he had never expected to lose his child in the sixth month. Bob had no desire to speak. Before the conference started, the leaders of the conference held a prayer meeting. Bob did not tell anyone what he had just endured. As they prayed, one of the men had a vision. He shared, that he saw a boy in heaven looking down at Bob and exhorting Bob, 'Come on, dad, come on. Let's go dad'. That vision encouraged Bob at the time, and he felt he saw the same vision for us, with God saying, "Well done". Bob had no prior knowledge of Caleb.

In July 2003, Bob Hartley comes back to speak at JCF's summer renewal conference. Bob, again, shares that for Lauren and I, the words of the wounded healer seemed applicable. It was a reiteration of the theme that God would use our painful experiences to bring healing to others in difficult periods. Bob shares that suffering is an invitation for intimacy with God. He went on to say that Abraham was asked to understand what it felt like to give up on his own son. Bob has no idea that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almost 18 months before. So it was a confirmation about the story of Abraham and how it applies to Caleb, Lauren, and myself.

As we were going home, we were appreciative of the confirmation, but we were a little disappointed that God did not say specifically that we were ever going to have children. We joked about it because deep in our heart, we did not want more understanding, but an actual promise that would confirm that we would have a family. Our deepest desire was for a family. That is all we wanted.

We decided to stop off at Walgreens to pick up a few things before we went home. On the way, Lauren mentions that, Sarah Kim had a Bible verse for us. As Bob was sharing the Abraham analogy, Hebrew 6:13-19 kept popping into her head. She did not know the verse,

but since the verse reference kept tugging at her heart, Sarah felt that the verse might be for us. She took the chance and shared that Bible reference not knowing if it would mean anything. Lauren and I decided to read the verse in the car as we were about to leave Walgreens.

"When God made a promise to Abraham, because He had no one greater by whom to swear, He swore by Himself, saying,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ultiply you'. And thus, Abraham, having patiently endured, obtained the promise... In the same way, when God desired to show even more clearly to the heirs of the promise the unchangeable character of His purpose, He guaranteed it by an oath... we who have taken refuge might be strongly encouraged to seize the hope set before us." (Hebrew 6:13-19)

Immediately, we both started crying in the car in stunned happiness. We felt that this was God's covenant to us that He is going to provide a family for us. Additionally, the verse says that God's covenant cannot be broken. That it is against His nature and, therefore, He cannot break that covenant. For us, it was a guarantee from God that He would deliver a child and a family for us. God spoke to our deepest needs not at a church or prayer meeting, but He met us at approximately 11 P.M. in the parking lot of Walgreens in Fort Lee, New Jersey.

On June 17, 2004, Amanda Eunhae Park was born. During the pregnancy, the doctors saw various things that seemed worrisome and, at one point, they were afraid that she might have Down Syndrome. Fortunately, everything went well, and all the Down Syndrome tests came back negative. Amanda was and still is a healthy and happy baby girl. Praise God!

There was so much that happened during both pregnancies that are not mentioned in this testimony due to length. One thing for sure, is that God was with us and He guided us. We do not know how God will use the story of Caleb, but we are thankful for God's faithfulness. He cradled us in His arms while we were in sorrow. We know that Caleb is completely healed and he is running around in heaven.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will see our son and be able to embrace him once again. There are so many people to thank both whom we know and whom we do not, all of whom had interceded for Caleb. We know that all their prayers enabled us to stand here today as a family with a beautiful daughter. **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발행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및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309 Parkside Dr Macungie, PA, 18063 ☎ 610-965-6168 Fax : 610-965-617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E-mail: _____ 소속 본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년() 기타() 금액() 회원번호()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진희, 강찬규, 강동훈, 강미, 최경미, 오선영, 이진민, 최동숙, 이은경,
 김혜정, 지글라라, 탐영순, 안말희, 조앤김, 이경희, 최순환, 전명자,
 조엘리자벳, 차애나, 황혜정, 이복자, 이귀옥, 조안나, 장연희, 홍세실리아,
 최조앤, 손난영, 박화영, 이인석, 조정희, 최루시아, 최루시아, 이카펠, 서정희,
 신순덕, 전문자, 안데레사, 홍병호, 아일린조, 데레사 우드리, 이택, 이송광,
 김데레사, 정일순, 김아가다, 조정희, 신소연, 지글라라, 친모니카, 배세실리아,
 정윌튼, 김금성, 김금순, 문화순, 박명순, 정금순, 정광선, 태차, 박선영,
 한패트릭, 김주, 이경, 김경순, 송센들라, 황정애, 송정순, 김갑식, 성순희,
 조애나, 차정숙, 김은경, 고미향, 윤병운, 이은아, 이순옥, 김태자, 박리오바,
 잔슨윤숙, 이유선, 성문선, 엄봉화, 최석례, 임효경, 최성구, 손은하,
 손마리아, 신정현, 민로사, 김성훈, 민현희, 김골롬바, 표상순, 표현경,
 최현숙, 서애자, 박금선, 전문석, 윤안젤라, 이레오니아, 전해연, 함데레사, 이훈섭, 김주희,
 오수산나, 이데레사, 홍젼마, 오모니카, 황카타리나,
 이경애, 류수연, 권숙자, 우기호, 유미영,
 김올리아나, 홍진범, 손미경, 유광문, 임선미,
 윤정숙, 윤경만, 최영자, 이수은, 주동진, 익명,
 스위스 한인 성당 공동체, 오세완 신부님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께서 제 30호 소식지 발행의 부족금 \$ 3,141.00
 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더욱 열심히 성
 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31호 후원금	\$ 9,449.00
지출 (30호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7,150.00
통신비	\$ 820.00
교통비	\$ 1,32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487.00
• 지출 합계	\$ 9,877.00
• 30호 부족금	- \$42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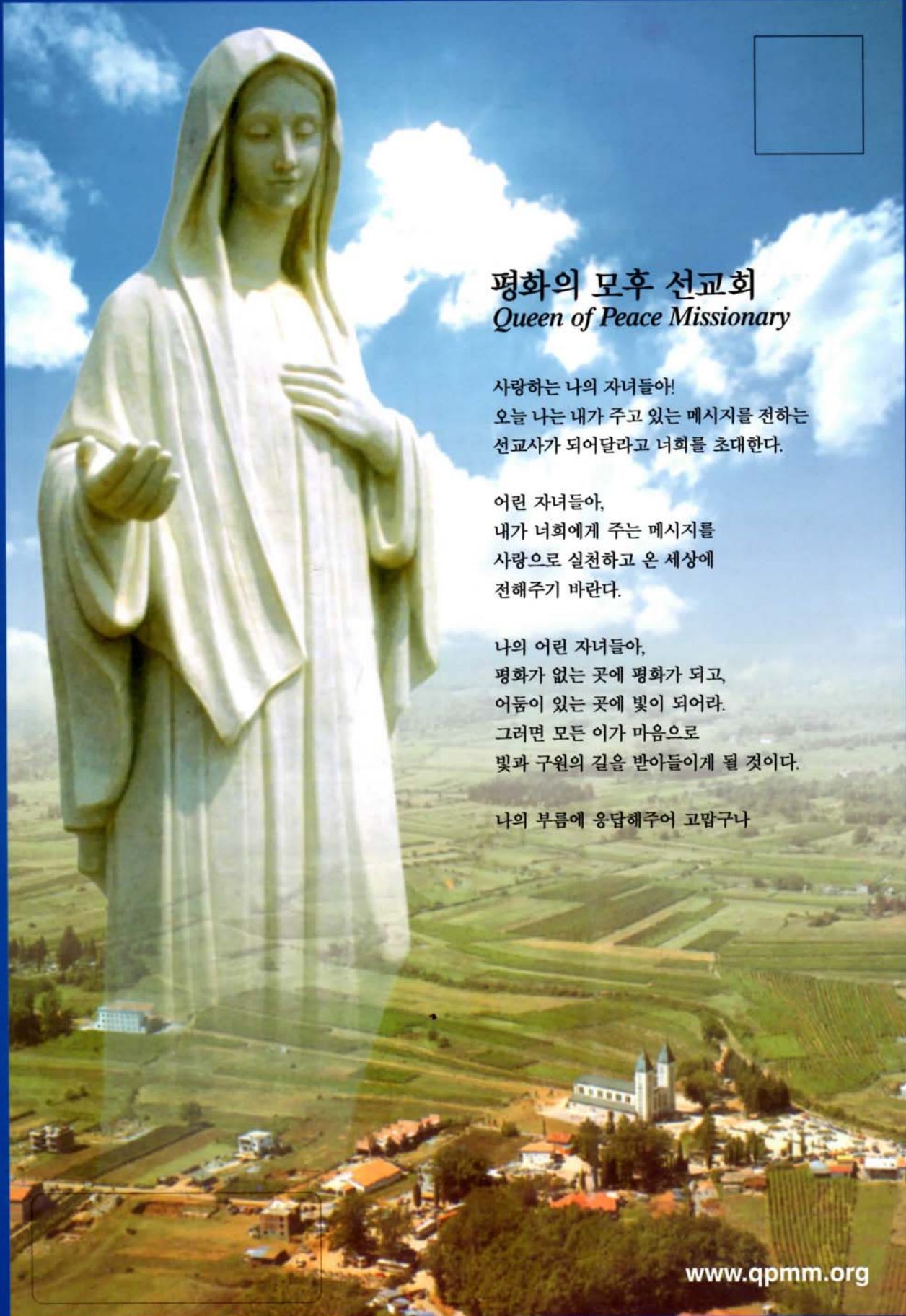
설터

완벽한 봉헌

"우리의 행위는, 가령 가장 결백한 것이어도
 하자가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결백하게 하자 없는 것으로
 예수께 봉헌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모님께로 가서
 성모님 것으로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 때 성모님께서서는 자신의 소유물로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이 하여 예수께 바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행위는 흠도 티도 없는 것이 되며
 예수의 신성(神性)을 통하여 무한한 가치를 얻게 되고
 아버지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송하게 됩니다."

-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on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KOREA

노선택 마리스

서울시 상동구 옥수 1동 515-1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